

# 월급날 책선물로 일구는 탄광촌 문화운동

## 책의 해 조직위 선정 '7월의 책의 인물' 사북탄좌 우리기업 대표 박윤희씨

청량리역에서 강릉이 종착역인 태백선을 타고 4시간이 넘게 걸려야 도착하는 고한역. 철길 주변을 흐르는 냇가의 돌이 탄광의 정화시설에서 나온 약품 탓에 붉은 빛이 감도는 고한역에서도 택시로 10여분간 산 사이를 헤집고 가다보면 도로 우측 한켠에 작은 팻말이 보인다. 사북탄좌의 도급업체로 연간 6만톤 가량의 무연탄을 생산하는 '우리기업'의 간판이 절척하고 시커먼 비포장 사잇길에 비껴 서 있다.

모양도 크기도 똑같은 마치 군대의 막사 같은 사택이 줄지어 서있고, 태백산 허리가 까맣게 드러난 이 탄좌가, 여느 탄광촌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최근 화제의 장소가 되고 있다. 그것도 화제의 이유가 석탄과 책의 인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색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중소기업의 대표 박윤희씨(47)가 책의 해 조직위원회로부터 7월의 책의 인물로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의 공적사항이 거창한 것은 아니다. 어느 기업이나 있기 마련인 월급날에 박사장은 직원들에게 월급봉투와 함께 한권의 책을 잊지 않고 선물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별일도 아닌데"라고 말하는 이 책 선물하기는 사실 세련되게 포장된 으리으리한 어떤 행사보다도 뜻있는 생활속의 독서운동이 아닐 수 없다. 창사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단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월 월급날이면 우리기업의 사원 104명의 땀이 뻗 손에는 책이 쥐어지고, 그것은 요란한 구호보다 훨씬 값진 독서운동의 성과로 남는 것이다. 정성근 고한읍 고한 15리에 위치한 우리기업이 세워

진 것은 지난 91년 1월, 23년을 이 곳 탄광에서 잔뼈가 굵은 박윤희씨가 종업원 지주제를 영목표로 설립한 것이다.

### 자수성가한 중소기업인이자 만학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1년을 중퇴하고 군에 입대했던 그는 제대와 함께 이 곳에 정착했고, 이후 자수성가해 이젠 도급업체를 운영하게끔 된 것이다. 그동안 경험을 쌓고 자금을 모아 중소기업을 일으킨 것이 사업가로서 그가 거둔 성공이라면 "공부는 평생하는 일"이라는 신조는 한 인간으로서의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학업을 마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던 박사장은 뼈뚫한 시간을 쪼개 방송통신대를 나왔고 지난 79년에는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는 결코 간단치 않은 벅찬 일을 해냈다. 바로 책읽기와 공부에 대한 그의 그런 굳은 신념이 해발 8백미터가 넘는 어디를 둘러봐도 높은 산이 둘러쳐진 삭막한 탄광촌에서 독서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환경이 책과 멀수록 더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아이들과 헤어져 있어 아버지가 해야 할 교육을 할 수 없어 틈나는 대로 책을 건네주고 독후감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 지식에 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가족들에게도 공부하며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급날 책 한권씩을 줌으로써 회사를 위해 일해준 고마움을 대신한 겁니다."

박윤희사장의 책 선물하기가 돋보이는 이유

### 강원도 정선 사북탄좌의

'우리기업' 박윤희사장은,

황폐한 탄광촌에서 독서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7월의 책의 인물로 선정됐다.

창사 이후 3년 동안 매월

사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급에도 책을 기증하고

싶다"고 전한다.

가 그의 얘기 속에 들어 있다. 그것은 자신만이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원들과 공부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기업의 독서운동은 1백명 남짓한 사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원들의 가족까지 합쳐 모두 5백여명이 책읽기에 빠져 있기도 하거니와 그로인해 이 지역에 독서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사장은 사원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부인을 염두에 두고 책을 고른다.

"전에는 제가 읽었던 것 가운데서 책을 골랐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적당한 것과 부인들에게 맞는 책을 선택하려고 한달이면 최소한 서너권을 읽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기업 문고'라고 이름 붙인 목록에는 「백범일지」 「퇴계언행록」 「소설 동의보감」 등 부부가 읽을 만한 것들과 「어린

이 천자문」 같은 아동도서도 포함돼 있다. 바로 지난달에 선물한 책 역시 소년소녀가장들의 수기모음인 「작은 아이들의 큰 이야기」란 책이다. 박사장이 사재로 구입해 아버지를 통해 건네주는 책 한권을 받는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신나는 선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눈을 씻고봐도 변변한 놀이터 하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탄전은 삭막하기 짝이 없는 곳이어서 그렇다.

### 책읽기는 황폐한 탄광촌의 문화운동

"책을 선물하기로 한 데는 탄광촌의 황폐함을 독서를 통해 덜어보자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고된 육체노동이 필요한 광부들에게 술과 유희 등은 필요악으로 여겨져 왔고, 그래서 이 곳에선 문화란 것이 없다시피 했어요. 또 고향을 떠나 정착한 이들에게 늘 타향인 여기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사실상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해서 예전에는 살인사건도 빈번했던 곳이었습니. 지금은 정말 살만한 곳이 된 셈이죠."

가뜰이나 거센 탄광촌의 환경은 탄광업체가 쇠락기로 접어들면서 악화되지만 했다. 26개에 이르던 탄광이 지금은 사북탄좌 한곳만 남았고 7만명이 넘던 주민 수도 이제 고작 2만을 상회할 정도로 줄어들면서 노사관계가 극한 상황까지 다다르는 일이 허다했던 곳이 바로 고한이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책 나눠 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박윤희사장은 얼마전까지도 경영압박으로 무척 고생을 했다. 창업과 함께 불어닥친 불황으로 적자가 3억원 가까이 누적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지

### 과학철학입문

R. 카르납 지음 / 윤용택 옮김 / 8,500원

저자는 풍부한 현대물리학적 지식과 원숙한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법칙과 논리, 공간과 시간,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 수학과 물리학, 인간관계와 결정론,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 등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다.

### 아프리카 동화

R. 아자리안, J. 커닝햄 엮음 / 노재운 옮김 / 3,000원

아프리카 방과 지방의 중학생들이 과제로 옛부터 전해내려오던 우화들을 채록한 것. 이 과정에서 고유의 문화유산에 대한 긍지를 느끼게 되고, 자신들도 후세에게 들려줄 값진 이야기를 창조해내야겠다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

### 중국철학의 정신 [新原道]

馮友蘭 지음 / 박신환 옮김 / 6,000원

內聖과 함께 外王의 추구, 정신 경계는 고명하나 실제 삶은 일상성에서 벗어나지 않음, 방내와 방외 즉 세간과 출세간 사이의 일체의 대립이 소멸된 경지를 추구함이 중국철학의 중요한 전통이며 큰 흐름임을 밝힌다.

### 공자의 철학 :

서양에서 바라본 禮에 대한 새로운 이해  
H. 핑카레트 지음 / 송영배 옮김 / 3,000원

서구인의 새로운 시각에서 조감된 공자는 깊은 통찰력과 탁견을 가진 위대한 사상가이며, 禮를 통한 仁의 실현을 강조한 그의 사상은 현대사회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을 밝힌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박윤희회장은 독서운동과 함께 지역개발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금까지 2천8백여권의 책을 구입하는 데 1천여 만원의 자금을 투자했다"고 말한다. 그의 말 처럼 그는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원 들에게 나아가 주민들에게 정서를 심어줄 수 있었고, 부대효과로 별다른 노사문제 한번 없이 대화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91년 1월 첫봉급을 타면서 함께 받아든 책을 바라보며 직원들은 무척 의아해 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술과 도박이 유일한 낙이었던 그들에게 책은 가당치도 않은 '쓸 데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차츰 그 들에게 박사장의 깊은 뜻이 담긴 책선물은 고 마운 것이 되었고, 이제는 사원들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월급날인 매달 29일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한다. 중업원 합기주씨(49)도 "학교 를 다니면서도 읽지 못했던 책을 나이 마흔이

넘어 회사 일 틈틈이 읽게된 것이 무척 기쁘 다"고 말한다.

책을 통해 노사간 마찰은 물론 이직률도 줄 이고 있는 우리기업의 박사장은, 그저 책을 선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매년 한번씩 갖는 체육대회나 야유회 때 독후감을 심사해 시상하는 '사후처리'까지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선물할 책을 고르기 위해 서점에 나가 이모저모를 따져 마땅한 책을 고르는 일 에도 정성을 쏟는 그다. 그의 그런 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진 것은 "사업이 실패했던 덕" 이라고 한다.

광산을 떠나 서울서 위생행주를 개발해 사 업을 벌였다가 부도를 낸 박사장은 은신하는 기간 동안 한 작은 서점의 책을 모두 가져다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이 책과 친해진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때의 사업실패는 책과의 인연도 맺어주 었지만, "내가 문힐 곳은 고한리의 탄전"이라 는 생각도 갖게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태 어난 경북 영주가 아닌 이 곳이 고향이라고 여긴다. 사북 JC회장을 역임하는 등 그가 지 역사업에 남다르게 열심인 것도 그런 이유에 서다.

"여기 주민들의 대부분이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평생을 뜨내기로 살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내 고향으로 만들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예회다 주민체육대 회다 하는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을 사랑 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지역사랑을 위해 그는 지 역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작년에 일본의 유바리시를 방문한 것도 그 때문이다. 탄광지 역이었다가 관광지로 변신해 크게 성공한 그 곳에서 고한리의 미래를 점쳐보기 위해서였 다. 박윤희회장은 탄광업의 쇠퇴로 인해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공업단지 조성을 "행정 적 허구"라고 일축하며, 자신의 고향이 살 길 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 관광지로 재탄 생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을 힘주어 말한다.

#### 지역개발과 독서운동 병행할 계획

"우리기업이 위치한 이 곳은 태백산과 함백 산이 있고, 주거지역도 평균적으로 해발 800 미터에 가까운 곳이어서 여름에도 모기가 없 어 휴가타운으로 조성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이른 봄에 봄비가 내려 생기는 설화는 장관을 이루고, 적설량도 적당해 스키장이나 산림욕장, 청소년수련장으로 꾸미기에 제격인

곳입니다."

그가 자랑으로 삼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우 리기업에서 5분이면 도착하는 고찰 정암사가 그것이다. 신라 선덕여왕 때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 절은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수 마노탑이 있어, 부처상을 모시지 않는 우리나라 5대 보궁 가운데 하나로 관광조건으로 들 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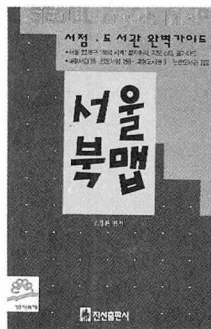
그러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기에 앞서 자 발적인 지역개발을 역설하는 적극성이 강한 그에게도 탄광업계에 대한 정부나 국민의 태 도에는 일말의 섭섭함이 있는 모양이다. 관광 지로라도 변신시켜 고장을 살려야 한다면서도 그는, "경제를 송두리채 뒤흔들었던 유류파동 때 피해를 덜어준 게 그래도 광부들의 거친 손이었는데"라며 탄광업계의 현실을 안타까워 한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다 섯군데의 국민학교와 네군데의 중 고등학교에 사원들에게 한 것처럼 책을 나눠줄 작정"이라 고 답하는 박윤희회장은, "도서관 하나쯤 세 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을 맺 는다. 책을 매개체로 노사가 '우리'로 뭉쳐 약조건 속에서도 기업을 건설히 운영하고 있 는 우리기업의 박윤희회장과 사원들은 "서로 돕는 마음, 부지런한 마음, 꿈을 갖는 마음" 이란 사훈을 지키며 새로운 탄광문화를 꽃피 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태원 기자

## SEOUL BOOK MAP

# 서울 북맵



### 책! 정보전쟁시대의 휴대품

#### 「서울·북·맵」

이책은 말한다. 문제는 정보이고 편리함이란 것을, 책의 정보, 각종 서점·도서관에 관한한 앞서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은 고안되고 편집되었다. 집어라. 그리고 그때 그때 빨리 읽고 책의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라.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5991  
팩시밀리 739-2129

### 서점·도서관 완벽가이드

- 1 **서점가 지도**  
주요 서점들의 권역별, 거리별 상세지도
- 2 **대형서점 가이드**  
16개 대형서점의 기본테마 및 취급도서 비교  
· 22개 구별 주요 신간서점 소개 및 지도 삽입 올가이드
- 3 **전문서점 가이드**  
4개 분야 28개 항목의 전문서점 160개 총망라
- 4 **대형도서관 가이드**  
2개 대형도서관과 1개 대형 자료관의 이용데이터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대학 도서관·청소년 독서시설 일람
- 5 **전문도서 가이드**  
6개 분야 46개 항목의 전문도서관(자료센터) 200개 총망라  
| 조경환 편저  
| 정가 4,500원